



## 성장하는 중국 곤약 식품시장

## 건강식재료 '곤약'

곤약의 원재료인 구약나물은 산간에서 자라는 천남성과(天南星科) 식물이다. 적당한 가공을 거친 뒤 식품으로 섭취하면 암, 비만, 고지혈, 고혈당, 변비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대의학 연구에 의하면, 구약나물의 이러한 효과는 구약나물에 함유된 주요 성분인 곤약글루코만난(konjac glucomannan, KGM)로부터 온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식이섬유로 인체의 소장에서 소화 및 흡수가 되지 않으며, 대장으로 넘어간 이후 장내 세균을 분해해 짧은 지방산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 곤약의 시장기능성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약나물을 생산하는 국가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구약나물 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 대부분은 원재료로 수출된다.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중국 구약나물 산업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낙후되어있다. 산업 발전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응용 영역도 비교적 좁다. 이에 비하면 일본은 구약나물 KMG에 대한 연구가 일찍 시작되어, 산업망이 비교적 밝다. 일본은 가장 먼저 구약나물의 공업화, 자동화를 사직한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 내의 구약나물 가공산업은 비교적 다원화되어 있으며, 구약나물을 일용 화학품, 화학공업, 의료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곤약협회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중국 곤약시장 규모는 약 400억 위안(한화 약 7조 4,124억 원)으로, 2010년 부터 2020년 사이의 성장률은 26%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2020년 중국인 1인당 연간 곤약 소비량은 0.1kg에 미치지 못했으며 소비액은 7.6위안(한화 약 1,408원)에 그쳤다.

같은 시기, 일본은 곤약 가공 시장 규모만 1,500억 엔(한화약 1조 6,045억 원)이었으며, 일본인 1인당 연간 곤약 소비량은약 2kg, 소비액은 약 70위안(한화약 1만 2,971원)에 이르렀다.

최근 중국에서 곤약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바이두 검색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곤약(魔芋)' 키워드 검색 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위엔치자본(元气资本)에 의하면, 타오바오(淘宝), 징동(京东)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곤약을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월 판매량이 10만 개 이상인 상품이 다수 검색된다. 또한, 곤약상품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엔치자본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곤약상품은 매운 곤약젤리(魔芋爽), 곤약면(魔芋面), 식사대용 곤약국(魔芋代餐粥), 식사대용 곤약당면(魔芋代餐粉), 곤약두부(魔芋豆腐), 가는 곤약당면(魔芋丝) 등으로 두루 나타난다.

## 관건은 '맛'

위엔치자본에 의하면, 곤약식품이 오직 '건강함'으로만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곤약식품에 달린 질의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소비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건강효과가아니라 맛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곤약식품 중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웨이롱 매운곤약 젤리(卫龙魔芋爽)' 상품의 질의응답란에는 826개의 질문이 달려 있다. 이중 '열량'이나 '건강'이라는 검색어로 질문을 검색하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지만 '맛있는'이라는 검색어로 질문을 검색하면 73개의 질문이 나타난다. 이는 곤약식품을 구매할 때에 소비자들이 맛을 중시하며과연맛이 있을지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곤약이 반드시 '건강에 유익한 제품'에 국한되어야하는 것도 아니다. 웨이롱식품의 매운 곤약젤리의 영양성분표를 보면 비교적 많은 소금과 첨가물, 향료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제품은 특유의 맵고 자극적인 맛과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즉 곤약식품은 특유의 건강효과를 살린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맛을 강조한새로운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곤약 식품시장에 어떤 상품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인가를 연구해볼 만하다.



웨이롱식품의 매운 곤약 젤리



작성자 다롄지사 오설매

**Key Point** 

중국의 곤약 식품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잠자는 용과 같다. 현재 상품 소비추세로 볼 때, 곤약식품이 반드시 건강효과 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이미 잡았거나 혹은 독특한 맛과 식감을 살린 제품들

로 준비가 되었다면 중국시장에 출사표를 던져볼 만하다.